

시민 행복 생태계 마련 분주

군산시, 지방소멸 대응 전주기 정책... 민선 8기 핵심 과제

군산시가 지역의 위기를 딛고 마련된 경제 재도약의 기반 위에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의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전국 각 지자체가 해법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군산시도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중·고등학생 교통복지 시네버스 무상 서비스, 어린이 상상도서관 건립 등 보육·교육 강화 정책을 필두로 지역소멸 방지 및 인구 증가 등 지역 혁신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지역 교육 혁신으로 수도권과의 학습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교육 부문 핵심사업인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는 지난 3월 플랫폼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멘토·멘티를 모집해 오는 5월 초 서비스가 개통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 교통복지 위한 '중·고등학생 시네버스 무상교통' 사업도 현재 시행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무엇보다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30%가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발표되는 상황에서 보

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양적 발전이 아닌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도 지방소멸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아가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 및 ESG의 행정이행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발전지표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에 담아 우리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과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시민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1차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워크숍'을 개최해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주요정책, 지표 개발을 위해 환경, 사회, 제도, 경제 분야의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점차 가시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이 수도권에 청년을 공급하고,

지방소멸은 심화되는 악순환을 끊고 '시민이 함께 하는 지립도시 군산 건설' 비전을 이행하는 역점 과제로써 '시민 행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주기 선순환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3~4월에 걸쳐 시민행복 생태계 구축 정책 발굴 회의와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함께 양육, 책임 교육, 청년 일자리, 정주문화 개선' 등에 대해 열린 논의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 3월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 2611.601명으로 2월 말에 비해 271명이 줄어들며 2023년에도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증가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다양한 인구 늘리기 사업 시행도 검토 중에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오는 20일, 24일 양일에 걸쳐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 청년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출산, 보육·교육, 청년 일자리, 정주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강민준 군산시장은 "전국 지자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 소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시는 한 두 개의 임기응변적 정책이 아닌 '잘 키우고 가르쳐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내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전주기 선순환 시민 행복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기자



신선이 노닐던 섬이자 CNN이 인정한 관광 명소 고군산군도에 해상관광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군산시 섬 관광, 제대로 일 냈네

말도·명도·방축도 '가고 싶은 K-관광 섬' 공모 선정 쾌거

신선이 노닐던 섬이자 CNN이 인정한 관광 명소 고군산군도에 해상관광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군산시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K-관광 섬 공모'에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돼 총사업비 115억(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50억)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 정경 관광지인 섬을 대상으로 관광 콘텐츠와 K-컬처를 융합한 섬으로 특화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5개소가 선정됐다.

시는 '말도·명도·방축도'의 세 섬을 연결하는 관광콘텐츠와 편의시설 조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고군산군도 트레킹 하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공모에 도전했으며, 서면심사(1월)·현장평가(2월)·발표평가(4월)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군산=이재훈기자

특히 사업대상지 및 기본구상안 수립 시 고군산군도 관련 사업추진 부서간 협업기구인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체를 통해 참여부서의 의견을 수렴, 공모에 선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실무협의체를 통한 협업은 물론 국회 의원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등 '가고 싶은 K-관광 섬' 공모 선정에 힘을 보탰다.

고군산군도 트레킹 하이는 '하늘 트레킹을 통해 즐기는 특별한 휴식과 모험'이라는 컨셉으로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방축도·광대도·명도·보농도·말도'의 5개 섬을 연결하는 총길이 1.278km의 해상인도교와 연계하여 캠퍼장 조성, 해안 탐방로, 청년예술인 놀이터 등 콘텐츠와 휴게소·화장실·숙박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 조성, 글로벌 메타버스·노출명축제·깃발축제 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산=이재훈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로컬크리에이터 대상자 최종 30명 선정

익산시가 지역 정체성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청년 창업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킨다. 시는 2023년 익산형 로컬크리에이터(청년 지역 가치 창출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 3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 및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결합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단계별 심사를 통해 만 18~39세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30명(팀)을 선정했다. 이들은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자금(시제품 개발비 및 공간 구축비 등) 및 창업 전문 교육기업을 통한 창업 교육과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조선업도약센터 직업훈련 교육생 모집

전북조선업도약센터는 조선업 인력양성을 위해 2차 '조선업 직무역량강화 융접 및 도장 2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며, 각 과정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2차 직업훈련 과정은 △조선업 선박 용접 과정은 5월 12일까지 △조선업 선박 도장 과정 6월 2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각 과정별 12명으로 총 24명이다.

융접과정 (훈련일정 5.22.~8.24, 60일 400시간) 및 도장과정 (훈련일정 6.12~6.30, 15일 100시간)으로 (취업신기술교육원에서 운영된다. 또한 이번 융접·도장 훈련과정은 교육비가 전액 무료이며 출석률 80% 이상 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한다.

훈련과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사 채용연계 과정으로 각 과정별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기술습득 후 취업연계로 진행되며, 취업 3개월 후에는 조선업 취업 정착금(1인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산=이재훈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왕궁 자전거길 열린다

익산시, 미륵사지·왕궁유적지간 총1140m 자전거탐방길 개통... 레저형 관광 인프라로 탈바꿈

익산시가 역사·문화·감성이 흐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잇는 자전거길을 조성해 금마·왕궁 일원이 레저형 관광 인프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한옥마을이 아름다운 금마를 중심으로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즐길 수 있어 연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한 금마 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이 개통됐다고 18일 밝혔다.

백제왕궁 자전거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국립익산박물관 연계 탐방을 위해 백제왕궁~미륵사지 세계유산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시는 금마사거리~천마동마을을 지나 왕궁유적지까지 총연장 1140m의



자전거길을 조성했고 일부구간은 기존 농수로부지를 활용한 옹벽블럭과 사도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한 자전거길을 만들었다.

이로써 금마면 한옥마을,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왕궁과 박물관이 있는 왕궁 유적지를 자전거로 이동하

며 역사문화와 자연여행 테마로 특색 있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지방도 722호선 금마~미륵사지 구간이 확장 개통되면 금마면을 중심으로 미륵사지와 왕궁유적지를 자전거 관광탐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농협협력 농약안전보관함 4천개 보급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나섰다.

농촌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작물별 적용약제를 혼동하는 등 농약 오·남용에 따른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3년 이내 모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전북 최초 농약 안전보관함 4,000개를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작했다.

농약안전보관함은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제초제를 색별로 구별하여 보관하고, 잠금장치와 열쇠가 있어 농약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올바른 안전한 농약 사용과 보관을 통해 농가의 농약에 대한 안전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농약안전보관함이 농가 호응이 좋아 신규 사업으로 확대 발굴했다. 지역농협과 공동협력을 통해 올해 4천 개 보급을 시작으로 3년간 지역 전 농가에 1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수량 중 금마, 낭산, 삼기 활동농협의 미달 수량에 대해 선착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